

국보 반가사유상과 사유의 여정

신소연, 사유의 방 18:00~18:30



금동반가사유상, 6세기 후반(좌), 7세기 전반(우), 국보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으로 관람객은 자신만의 사유의 의미를 찾아보며 특별한 여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반가사유상의 ‘반가半跏’란 한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반半결가부좌의 자세를 의미하고, ‘사유思惟’란 살짝 손을 얼굴에 댄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뜻합니다.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태자시절 모습과 중생 구제를 위해 깊은 생각 끝에 깨달음에 도달한 보살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가에 흐르는 신비로운 미소는 깨달음의 찰나를 상징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사합니다.

과거 한 점씩 교대로만 볼 수 있던 두 반가사유상을 <사유의 방>에서는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상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표정, 옷차림, 제작시기가 다릅니다. 6세기 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왼쪽)은 이목구비가 날카롭고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가 특징이지만 선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7세기 전반에 제작된 반가사유상(전시실 오른쪽)은 노출된 상반신에 간결한 보관과 장신구만 걸치고 있지만, 무릎 아래 옷주름은 울동적입니다. 두 반가사유상은 화려하면서도 절제되어 있고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 공간을 위해 박물관은 건축가와 협업하여 반가사유상의 에너지와 전시 공간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울어진 벽과 바닥, 천장은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천장의 은은한 별빛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사유의 방에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의 여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72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12일)

조선을 바꾼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김진실, 118호 조선Ⅱ실 18:00~18:30

조선은 16-17세기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되어 조선, 명, 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전이었습니다. 조선은 7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명은 북방에서 성장한 후금을 견제하지 못하고 명청교체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은 에도막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이후 격변한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청의 침입으로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세력을 키운 후금(청)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다시 큰 전쟁을 겪고 굴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두 전쟁은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후기에는 이 두 전쟁을 일컬어 양난兩難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무기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신무기인 조총鳥銃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화약무기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살상력이 높은 대형화포를 판옥선이나 거북선에 실어 일본 군선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화약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도 발명했습니다. 일본의 조총을 노획하여 제조기술을 확보했고 명나라의 무기기술을 수용하여 삼안총三眼銃과 불랑기佛朗機 등을 개발했습니다.

전쟁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참혹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상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위정자는 통렬한 반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도망간 관군을 대신하여 지역의 백성을 지키는 의병장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피란살이를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생생한 경험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봉하여 그 공적을 기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장수, 의병장, 순절자의 이야기를 소설과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영웅의 활약상을 주제로 한 소설을 읽으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전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계속되었습니다.

제72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12일)

조선시대의 토끼 그림

김지선, 202호 서화Ⅱ실 19:00~19:30



심사정, <매에게 붙잡힌 토끼>, 1768, 지본담채, 115.1×53.6cm, 국립중앙박물관

올해는 계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무수한 세월 동안 인간과 공존한 작고 약한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토끼를 소재로 소설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에 조선시대의 동물 그림에서도 종종 토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토끼 그림 중에서는 토끼가 달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토끼가 달에서 서왕모라는 여신을 위해 불로장생의 약초를 쫓는다는 도교적 신화에 근거합니다. 즉 달과 토끼가 함께 등장하는 그림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복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토끼가 매와 함께 등장하는 그림도 존재합니다. 해당 그림의 주인공은 토끼를 재빠르게 낚아채는 용맹한 매로서, 이 경우 토끼는 지혜롭다 못해 교활한 간신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주제의 그림은 연초에 세화(歲畵)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토끼는 어떤 맥락에서 그려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조선시대의 동물 그림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72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4월 12일)

조선 사람들의 꿈, 평생도를 디지털로 만나다

양승미, 2층 기증관 앞 휴게공간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박물관 소장 <평생도平生圖> 8폭 병풍을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사람들의 꿈, 평생도’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의 결과물을 담은 미디어 병풍과 경대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꿈꾸었던 인생의 8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평생도>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복원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평생도> 작품 정보와 디지털 복원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평생도>의 심화 학술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소장품의 훼손된 정도를 디지털로 채워넣고, 변색되고 오염된 부분까지 원래의 색에 가깝게 디지털로 복원하였습니다. 디지털 복원은 이후의 연구 성과에 따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경대 키오스크에 이러한 디지털 복원의 전후를 확대하여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디어 병풍은 디지털 복원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3D 효과를 가미하여 생동감 있는 조선시대 사람들 누구나 이루고자 했던 인생의 8가지 장면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듈형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원 및 우리문화재 국외전시·외국박물관 한국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과 협업한 이 사업으로 총 3대의 미디어 병풍과 경대 키오스크가 제작되었고, 재외 한국문화원 및 한국실에서 상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국외 출품이 가장 까다로운 회화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해외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병풍 및 경대 키오스크



경대 키오스크